

호주 호스피스 연수기

김혜자 수녀

한국 가톨릭호스피스 협회장

기온이 섭씨 30도를 훨씬 넘는 듯이 느껴지던 날 오후에 호주로 떠나기 위해 우리 일행 회원 16명이 KAL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는 오후 7시40분에 출발하여 Brisbane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새벽 6시40분.

우리 일행이 공항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 30분이어서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방 배정을 받았다.

제일 먼저 방문하기로 한 기관은 Karuna Hospice였다. 그 곳 방문 일정이 오후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인근에 있는 호수로 가서 공해 없는 자연과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표현할 수 없이 상큼한 기분을 만끽하며 호수가 보이는 야외에서 식사를 주문하여 즐거운 식사를 한 후 우리 일행은 Karuna Hospice로 향했다.

Karuna Hospice 기관은 바로 옆에 노인을 위한 Day Care Center가 인접해 있어 우리의 시선을 끌었고 불교(라마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정 방문형 호스피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 불교신자 환자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기관을 찾아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의 70%가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우리는 기관에 대한 소개와 강의,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지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날은 Mt. Olivet Hospice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아침부터 서둘렀다. 도착하니 미리 준비된 많은 자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관의 특성을 소개받으며 매우 친근함

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기관은 성 빈센트 정신으로 40년 전에 시작한 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 호스피스는 1982년에 자선수녀회로부터 땅을 기증 받아 간호직을 수행하는 수녀와 종교적인 일을 하는 수녀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기관이었다.

구석구석 환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으며 마치 자연속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벽에 부착된 형광등만 보더라도 환자가 필요할 때에 자신이 조절하여 등을 비출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간접조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간단한 것이었지만 ‘환자들의 배려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일행은 사전에 Brisbane에는 유명한 Gold Coast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 곳 호스피스에서의 오후 프로그램을 한시간만 단축하였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보았으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을 단축하여 한 시간 일찍 그곳을 떠났다.

전철을 타고 버스를 이용하여 그곳에 갔으나 이미 해가 진 후에 도착되었으므로 캄캄한 밤이었다.

그 곳 날씨는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로 약간은 쌀쌀하였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워 늦은 시간임에도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으며 물 속을 드나들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열 한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무척이나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몸이 붓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몸이 피곤하지가 않았다.

다음날은 새벽 5시 30분에 아텔레이드로 가기 위



해 공항으로 향해야 했었기에 혹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지나 않을까 하여 서로 깨워 주기로 하였다.

예정대로 다음 도시인 아델레이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였다.

도착해서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Mary Potter Hospice의 기관장 수녀님이 나오셔서 한국에서 왔다고 태극기를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우리 일행이 병원을 들어섰을 때에 시야로 보이는 그 느낌은 아름답고 깨끗한 기관이라는 느낌이였다. 우리를 위해 점심 준비가 되어 있었고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이미 준비된 회의실로 가서 그날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기관은 유일하게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시작한 기관 중 하나로 1980년대에는 간호사를 위한 훈련 기관으로 호주 간호협회에서 호스피스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아 1,596명의 간호사가 그곳에서 훈련 과정을 마쳤다는 기관의 소개를 들으며 교육이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현대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989년에 입원환자와 지역 사회 환자 간호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우리가 방문하기 3개월 전에 Cancer Center를 개원하였고 사별 가족 간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 아동이나 어른이 사별 가족이 되었을 때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별 가족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육중에 들려준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관리에 관한 강의는 우리 일행 모두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곳 병원장 수녀님의 배려로 우리는 한국 요리

로 준비된 저녁만찬에 초대되었으며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그곳 기관의 운영 방법이나 후원금 모금 방법과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도 들려주어 의미가 컸다.

이렇게 아델레이드에서의 첫째날을 보내고 둘째날에는 Daw House Hospice 기관 방문이 계획되었다.

우리는 이미 Dr. Maddocks을 지난 5월 한국에 초대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서 만난 일이 있었으므로 그곳 기관에서 만났을 때는 아주 오래된 반가운 사람을 만난 기분이였다. 그분의 환영을 받고 일정 소개를 한 후,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초대 할 예정이라 자기 부인이 집에서 요리 준비로 바쁜 날 이라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Daw House Hospice 는 많은 외국인들이 교육을 받고자 찾는 기관이다. 바로 그 느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오든지 교육 package가 되어 있었다. 그 기관 역시 1989년에 개인 집을 인수받아 시작된 호스피스 기관으로 입원한 환자는 15명에 불과했지만 가정 방문을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였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보다 먼저 시작했던 곳은 아니었으나 사회 보장 제도, 국민 수준, 봉사 정신 등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활동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호스피스 병동 내부를 Tour 하면서 환자를 위한 공간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에 놀랐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 곳이었다. 또 한 가지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

은 Dermalux 라는 Oil과 끓는 물을 혼합해서 큰 Towel에 부어 약간 식힌 다음 환자에게 부위별로 덮어 주면 그들의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보여 주었던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영국 호스피스 기관에 다녀온 회원들에 의하면 영국에 향료 요법이 상당히 많다고는 하나 이곳 간호사가 그 기관에서 개발한 것이라며 소개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한 의미를 갖게 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Dr. Maddocks와 그 외 전문가들이 함께 앉아 우리들과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등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Dr. Maddocks의 저녁식사에 초대받아 시간에 맞추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부인은 우리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Dr. Maddocks 선생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뒤 틀에서 우리를 위해 맛있는 고기를 직접 구워 주었다. 우리 일행은 저녁 만찬을 마치고 바닷가를 잠시 돌고 돌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다음날 시드니로 떠날 준비를 마친 후 늦은 시간에 호주에서의 무사함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곳의 뒷정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였다.

오전 8시 30분에 탑승한 비행기는 오전 11시나 되어서야 시드니 공항에 닿았다.

우리를 위해 이미 연결이 되었던 한인 가이드가 그곳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누구나 가보고 싶은 시드니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동시에 들었다.

그 도시에서 크지는 않지만 잠시 배도 타 볼 수 있었고, 바다 밑 서브웨이도 지날 수 있었고 짧은 등산이었지만 블루마운틴 가는 길에 등산도 하였다. 그 외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개인 동물원에서 캥거루, 코알라 등을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을 갖기도 하였다.

우리들은 빠듯한 일정으로 하루 반 동안 밖에 그 곳에 머물 수 없었음을 펴어나 아쉬웠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서 마련한 외국연수였지만 일정이 빡빡하여 오로지 시드니에서의 휴식이 아쉬움을 남긴 듯하였다.

이상으로 우리는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4개의 호주 호스피스 기관을 살펴 보았는데 그 기관명과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즉 Karuna Hospice는 불교계 기관으로서, Mt. Olivet Hospice는 전통적인 기관으로서, 갈바리 병원의 Marry Potter Hospice는 현대적인 기관으로서, Dr. Maddocks가 속해있는 Daw House Hospice는 국가기관에 속한 기관으로서 어떻게 호스피스 활동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호주의 호스피스는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눈에 띄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 보장제도, 국민성, 봉사 정신 등이 현저하게 달리 보였다. 아울러 우리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토대로 하여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서 제도적인 관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호스피스 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리라 생각된다.